

# 상이한 시간 속 동일한 저항의 역사 담는다

스물여덟 번째 4·3미술제 4월 2~30일 이아 갤러리 등 '어떤 풍경' 2년 연속 기획전 내달 15일 온라인전도 병행 미안마 민주화 부스도 마련



이명복의 '긴 겨울' (캔버스에 아크릴, 2020).

탐라미술인협회가 주최하고 4·3미술제준비위원회(위원장 강문석)가 주관하는 스물여덟 번째 4·3미술제는 '제주 민중의 저항'에 주목했다. '이재수의 난'으로 널리 알려진 120년 전 '신축제주항쟁'을 시작으로 '해녀항일항쟁', '4·3항쟁'을 지나 지금 여기 제주가 맞닥뜨리고 있는 개발, 환경 이슈까지 그 중심에 있는 제주 사람들의 분투를 그리려 한다.

이는 우리가 계승해야 할 4·3 정신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계승해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 끝에 다다른 답이다. 냉전의 역사 한가운데 제주가 가장 먼저 아팠고, 마지막까지 아픈 기억을 견뎌내는 그 힘이 민중의 저항을 견인하고 있다고 보고 시각 예술에 그 여정을 담는다.

4월 2일부터 30일까지 제주시 원도심 예술공간 이아 갤러리, 인근의 포지션 민 제주에서 펼쳐지는 이번 미술제는 '어떤 풍경'이란 제목을 달았다. '상이한 시간 속에서 동일한 저항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제주, 광주, 여수, 순천 등 도내외 작가 52명, 대만과 오키나와 등 해외

작가 4명이 작품을 낸다. 이 전시는 특히 2022년까지 이어지는 2년 연속 기획전으로 마련됐다. 전시가 끝나더라도 제주 역사 순례, 세미나,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 성과들을 모아 다음 해에 해당 주제를 구현하는 더 내밀한 작품을 선보이기로 했다.

올해 4·3미술제는 역사를 박제한 전시가 아닌 오늘을 사는 세계 각 지역 사람들과 함께 싸우고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로 미안마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자리도 갖는다. 미안마 부스 전시와 더불어 개막일에 4·3미술제 참여 작가의 이름으로 미안마의 민주화에 힘을 보태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전시와 함께 4월 15~11월 30일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온라인(www.43art.org) 전시도 예정되어 있다. 관람료 무료. 전선회기자

##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27.3%... 음악 최다

2020 문화예술교육조사 제주 등 17개 시도 대상 연령 높고 소득 낮을수록 예술교육 참여율 낮아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가량은 문화예술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만 19세 이후부터는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이 급격

히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2020 문화예술교육조사' 결과다. 제주 등 17개 시도 총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는 교육 참여율과 만족도 등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담은 최초 국가승인통계다. 문화예술교육은 음악·미술·무용·연극·영화·문학·전통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배우으로써 일상에서 살아간다는 데 필요한 창의적인

생각과 예술적 감성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교육 과정과 활동을 말한다. 조사 결과 2020년 한 해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27.3%였다. 가장 많이 참여한 문화예술교육 유형은 '공연 예술-음악'(51.0%), '시각예술-미술'(46.6%), '시각예술-영상'(29.8%), '인문예술-문학'(25.0%) 순이었다.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해 본 국민의 지속적 참여 의향은 81%로 높았으나, 참여 경험 없는 국민의 경우 36.6%만이 향후 참여 의향을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연령이 높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낮아진다는 결과도 나왔다. 영유아(45.1%), 아동·청소년(49.1%)이 50%에 가까운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을 보이는 반면 19세 이후(29.5%)부터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이 급격히 낮아져 성인 후기(50~64세)에 이르면 19.4%까지 감소했다. 가구소득별로는 최고 소득(월 600만 원 이상, 32.7%), 최저 소득(월 100만 원 미만, 25.4%) 간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이 7.3%포인트 차이를 드러냈다. 지역구별로는 중소도시(32.3%)와 대도시(22.9%) 간 참여율 차이가 9.4%포인트였다. 전선회기자 sunny@ihalla.com

## 문화가 쫓겨

제주학 연구비 지원 공모

제주학연구센터는 2021년 제주학 연구비 지원 사업에 따른 연구자와 연구단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에선 연구 단체(또는 기관) 대상 기획 주제 1건, 개인 대상 자유 주제 2건을 선발한다. 2019~2020년 제주학센터 공모 사업 수혜자는 응모할 수 없다. 지원서는 4월 5일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kes14899@jst.re.kr)이나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747-6137.

한라도서관 4·3문학도서관

제주도 한라도서관은 제주4·3 특별법 전면 개정 환영 분위기 조성 일환으로 '4·3 문학기행' 전시를 열고 있다. 지난 29일 시작돼 4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 전시엔 소설, 서사시, 사진집 등 4·3의 역사를 문학으로 승화한 30여 권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기간에 4·3 관련 영상물 상영도 이뤄진다. 도서관 측은 "4·3 전국화를 위한 주춧돌을 다지는 독서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우당도서관 문학 치유 여행

제주시 우당도서관은 4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내면아이를 만나는 문학 치유 여행'을 운영한다. 강은미 시인이 강사로 나서는 이번 문학치유여행은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금요일마다 총 8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나만의 독서이력, 내 안에 잠든 목소리, 관계의 이력, 세대를 잇는 공감 등이다. 참가자는 4월 1일부터 '책섬, 제주 홈페이지' 사전신청란을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열세 번째 '오라의 꿈' 발간

오라책임주부들의모임(회장 문명숙)이 '오라의 꿈' 열세 번째 이야기를 펴냈다. 이번 호에는 제13회 오라문학백일장 학생 작품과 주부 작품을 중심으로 꾸었다. 제주어사랑, 방선문백일장도 담았다. 양전형 시인, 이종실 수필가 등이 쓴 초대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오라책임주부들의모임은 책을 읽고, 책을 읽어주고, 작품을 쓰고, 작품을 발간하고, 문화 향유를 위한 발표를 이어 오고 있다.

## 고재만의

### 제주여성기림총관

<247>

구성: (사)제주여성보존회 <개만그림글자 응용>



하라바지 골맨. "오맹이야, 제주신화 중이서 '가문장아기' 영 흥는 이와길 흥여보겨." 오맹이 골맨. "누님, 제주신화 이와 무슨지 안 흥지양?" 골맨 골맨. "오맹이, 옛날 이야은 무수와도 즈미지네게." 하라바지 골맨. "개민 이재부며 이와길 흥커며 잘 들어보라. 막 옛날, 어느 옷드르 무실에 흥년이 들어신디, 이 무실에 가난하게 사는 흥 남자 아오가 이섯저. 아오가 흥루긴 하도 배고프면 먹으켜라도 얻어먹어보겨 흥연 짚을 나섯주. 저 뒷산 너머에 큰 무실이 이신디 그단 흥년이 들었겐 소븐 들어겐 그디레 가보젠 흥영주."

### \* 제주어 풀이

- \*무수지 안 흥지양?: 무섭지 않지요?
- \*이야은 무수와도 즈미지네게 : 이야기는 무서워도 재미는 있지.
- \*옷드르 무실에 : 산촌 마을에.
- \*흥년 : <이름>흥년. \*흥년이 들어신디 : 흥년이 들었는데.
- \*흥 남자 아오가 이섯저 : 한 남자 아이가 있었어.
- \*아오가 흥루긴 : 이 아이가 하루는. \*먹으켜라도 : 먹거리라도.
- \*얻어먹어보겨 흥연 : 얻어먹으려고. \*짚을 나섯주 : 짚을 따났어.
- \*들어겐 : 듣게 돼서. \*그디레 가보젠 흥영주 : 그곳에 가보려 했다.

고재만 화백

## '제주여성 4·3의 기억' 구술 채록 사업

제주여성회 4·3과여성위 2018년부터 총 48명 채록 올해는 구술 참여자 모집

제주여성회가 주최하고 제주여성회 4·3과여성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 제주여성 4·3의 기억' 구술 채록 사업에 참여할 구술자를 모집한다.

구술 채록 모집 대상은 현재 제주에 살고 있으며 4·3을 직접 경험한 1940년 이전 출생자(82세 이상) 또는 어머니를 통해 4·3을 전해 들은 후회체 제대 여성이다. 모집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구술자와 채록자가 만나 말하고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행 일정, 횟수, 장소 등은 4·3과여성위원회와 협의

를 통해 조율할 수 있다. 4·3과여성위원회는 4·3에서 지워진 여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결과물을 제주 사회에 공유하는 활동을 이어 오고 있는 곳이다. 제주에서 30여 년 여성운동을 펼쳐온 제주여성회는 4·3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취지로 2017년에 4·3과여성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듬해부터 제주 여성 구술 채록 작업에 나섰다. 2020년까지 지난 3년 동안 48명, 79회의 구술 채록을 벌였다. 제주여성회는 "이번 구술 채록 작업을 통해 언제나 객체로, 희생자의 위치로만 한정됐던 여성들의 이야기, 아직 기록되지 못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른 시선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고 했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링크(http://bit.ly/구술자\_신청)를 이용하거나 전화(064-756-7261)로 가능하다. 전선회기자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주)팜그린텍**

**Farm Green Tech 공기교반기(130W)**

특허받은 모터캡 사용으로 모터 2중보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특허 제10-2078975호**

침체된 하우스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 광합성 촉진

균일한 생육 및 성장 촉진

하우스내 상/하부 온도편차 감소

여름철 고온피해 및 겨울철 냉해피해방지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천장형환풍기(330W)**

특허 제10-2182942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환풍기(800W)**

프레임 보강 셔터 사용 -내구성 향상

고풍압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송풍팬(6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송풍팬(13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주)팜그린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 www.팜그린텍.kr / www.fgtech.kr